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I. 주요국 경제 동향	1
II. 국내 경제 동향	4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7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10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12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5-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6255-5709)
nhy@koreaexim.go.kr

I. 주요국 경제 동향

1. 미국

□ 고용지표 호조 및 낙관적 경기전망을 바탕으로 기준금리 인상(3.21) 단행

- (산업동향) 2월 산업생산은 제조업, 광업 생산 호조로 전월대비 증가 전환, ISM 제조업지수 또한 2004년 5월 이후 최고치 달성, 소매판매는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3개월 연속 전월대비 0.1% 감소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7.11)58.2 → (12)59.3 → ('18.1)59.1 → (2)60.8

- (수출입) 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2,009억 달러, 수입은 7.4% 증가한 2,575억 달러 기록, 무역적자(566억 달러)는 5개월 연속 적자 폭이 확대되어 보호무역정책 강화 우려감 증대

- (고용·물가) 2월 실업률은 5개월 연속 4.1%로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 유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완만한 오름세(2.2%)를 지속하고, 근원PCE물가지수*도 여전히 2%를 하회하며 연 3회의 점진적 금리인상을 지지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17.10)1.4 → (11)1.5 → (12)1.5 → ('18.1)1.5

2. 유로존

□ 생산·소비·물가 등 지표가 전월대비 부진하였으나,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산업동향) 1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는 각각 전월대비 1.0%, 0.1%씩 감소하여 소폭 조정을 받았으며, 2월 제조업 PMI*는 경기확장 기준선(50)을 상회하였으나, 확장속도는 다소 둔화

*제조업 PMI(기준=50): ('17.11) 60.1 → (12) 60.6 → ('18.1) 59.6 → (2) 58.6

- (수출입) 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한 2,370억 달러, 수입은 21.1% 증가한 2,123억 달러 기록, 유로화 강세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무역흑자 감소

- 유로화 기준으로는 1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7.4%, 5.2% 증가

- (고용·물가) 1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8.6%로 2008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의한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1.1%(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여 여전히 부진한 수준

3. 일본

□ 1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이 조정을 받았으나 완만한 성장세 지속

- (산업동향) 1월 산업생산이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대폭($\Delta 6.8\%$) 감소하고, 소매판매도 소폭 감소($\Delta 1.6\%$)하였으나 일시적 둔화로 추정, 2월 제조업 PMI*는 18개월 연속 기준선(50)을 상회하며 경기확장세 유지

*제조업 PMI(기준=50): ('17.11) 53.6 \rightarrow (12) 54.0 \rightarrow ('18.1) 54.8 \rightarrow (2) 54.1

- (수출입) 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633억 달러, 수입은 21.5% 증가한 652억 달러 기록, 엔화 강세 등 영향으로 무역수지(계절조정) 적자 전환

- 엔화 기준으로는 2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2.1%, 15.9% 증가

- (고용·물가) 1월 실업률은 2.4%로 1993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를 기록*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1기 임기의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3.9.) 후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은 없어졌다”고 평가

4. 중국

□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해 2018년 성장률 목표를 6.5% 내외로 제시하고, 공급측면 개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언급

- (산업동향) 12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6.2%, 9.4%씩 증가하여 안정적 성장세 지속, 2월 제조업 PMI*는 경기확장 기준선(50)을 상회하였으나, 확장 속도는 3개월 연속 둔화

*제조업 PMI(기준=50): ('17.11) 51.8 \rightarrow (12) 51.6 \rightarrow ('18.1) 51.3 \rightarrow (2) 50.3

- (수출입) 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4.5% 증가한 1,716억 달러, 수입은 6.3% 증가한 1,379억 달러 기록,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무역흑자 1,000억 달러 감축 요구에 대응하여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전자제품 공장 이전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물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춘절 연휴로 소비심리가 호전되어 전월대비 1.4%p 상승한 2.9% 기록

※ 중국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을 발표(4% 내외), 실제 실업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신뢰 가능한 지표 개발 전까지 고용 관련 내용 생략

해외 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	2.9	1.5	0.7	0.4	2.3	0.3	0.8	0.8	0.6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2	0.2	2.0	0.4	1.4	△0.3	2.0	△0.3	1.1
	소매판매(전기비)	2.6	2.9	0.9	1.3	4.6	1.4	0.3	1.1	2.5	△0.1	△0.1
	수출(전년동기비)	△4.7	△2.5	△0.6	1.4	5.6	6.5	4.9	3.9	7.1	5.1	-
	수입(전년동기비)	△3.6	△1.9	△1.4	2.7	6.9	7.1	6.6	5.4	8.6	7.4	-
	실업률	5.3	4.9	4.9	4.7	4.4	4.7	4.3	4.3	4.1	4.1	4.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8	2.1	2.6	1.9	2.0	2.1	2.1	2.2
유로지역	GDP성장률(전기비)	2.1	1.8	0.4	0.6	2.3	0.6	0.7	0.7	0.6	-	-
	산업생산(전기비)	2.1	1.6	0.4	1.0	2.9	0.1	1.2	1.3	1.5	△1.0	-
	소매판매(전기비)	3.0	1.7	0.6	1.0	2.3	0.2	0.8	0.5	0.4	△0.1	-
	수출(전년동기비)	△123	0.2	1.1	2.0	11.1	4.3	7.7	13.6	18.9	23.7	-
	수입(전년동기비)	△145	△1.1	△0.5	2.4	13.7	7.5	11.7	15.5	20.1	21.1	-
	실업률	10.9	10.0	9.9	9.7	9.1	9.5	9.1	9.0	8.7	8.6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3	0.7	1.5	1.8	1.5	1.4	1.4	1.3	1.1
일본	GDP성장률(전기비)	1.4	0.9	0.2	0.3	1.7	0.5	0.6	0.6	0.4	-	-
	산업생산(전기비)	△1.2	△0.2	1.6	1.9	4.7	0.2	2.1	0.4	1.8	△6.8	-
	소매판매(전기비)	△0.4	△0.6	0.1	6.9	1.9	△4.9	0.7	△0.4	6.9	△1.6	-
	수출(전년동기비)	△8.8	2.3	7.3	6.4	9.3	12.8	6.2	6.1	12.6	13.5	7.1
	수입(전년동기비)	△19.8	△6.5	△3.0	0.6	11.2	11.9	10.9	6.7	15.4	10.0	21.5
	실업률	3.4	3.1	3.0	3.0	2.9	2.9	2.9	2.8	2.7	2.4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5	0.3	0.5	0.3	0.4	0.6	0.6	1.4	-
중국	GDP성장률(전기비)	6.9	6.7	1.8	1.7	6.9	1.4	1.9	1.8	1.6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1	6.0	6.1	6.1	6.6	6.8	6.9	6.3	6.2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5	10.6	10.2	10.0	10.8	10.3	9.9	-	-
	수출(전년동기비)	△3.0	△7.7	△7.0	△5.3	7.9	7.2	8.2	6.4	9.7	11.2	44.5
	수입(전년동기비)	△14.3	△5.5	△4.4	2.7	16.0	24.3	14.2	14.7	12.5	36.8	6.3
	실업률 ¹⁾	4.0	4.0	4.0	4.0	3.9	4.0	4.0	4.0	3.9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1.7	2.2	1.6	1.4	1.4	1.6	1.8	1.5	2.9

주 : 1)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호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 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이 가능

2)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Ⅱ. 국내 경제 동향

1. 산업활동 : 1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생산) 전산업생산지수는 건설업, 서비스업, 광공업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증가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8% 증가

□ (소비) 소매판매는 승용차,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증가

- 1월 소매판매는 전월 승용차 판매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및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 판매 증가로 내구재 판매가 대폭(6.1%) 늘어 1.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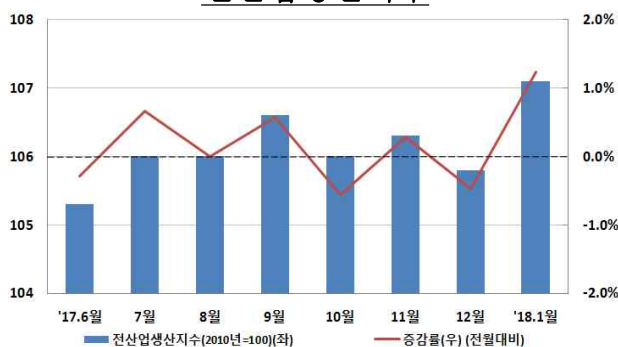
*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0.5% 증가에 그침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3개월 연속 증가, 건설기성(불변)도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2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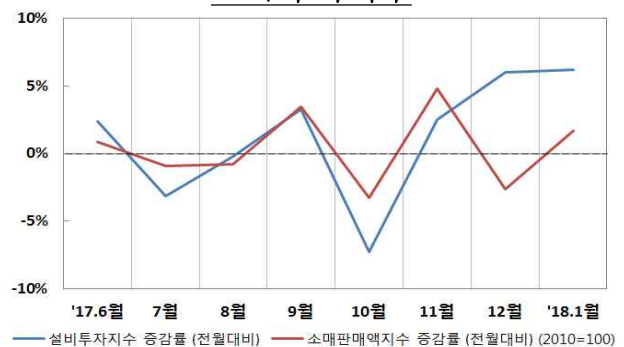
- 1월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6.9%)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6.2% 증가
- 1월 건설기성(불변)은 주거용 건물 기성액 호조, 평창올림픽 선수촌 건설 등 요인으로 전월대비 8.2% 증가

□ (경기) 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한 99.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한 100.8 (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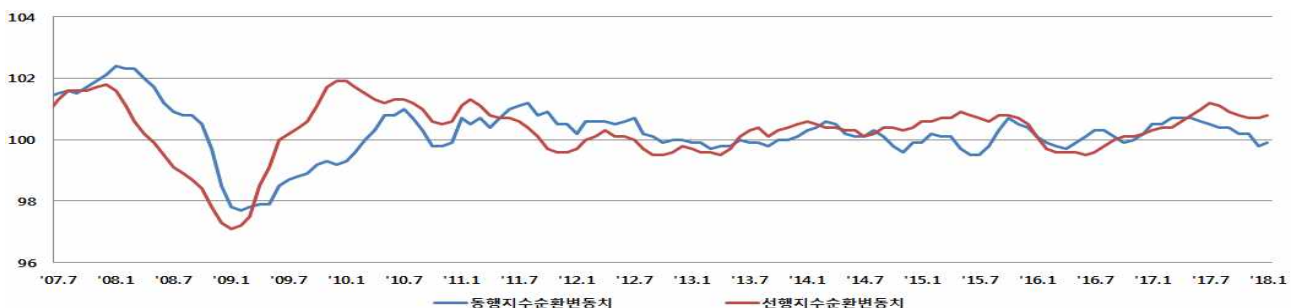
전산업생산지수



소비·투자지수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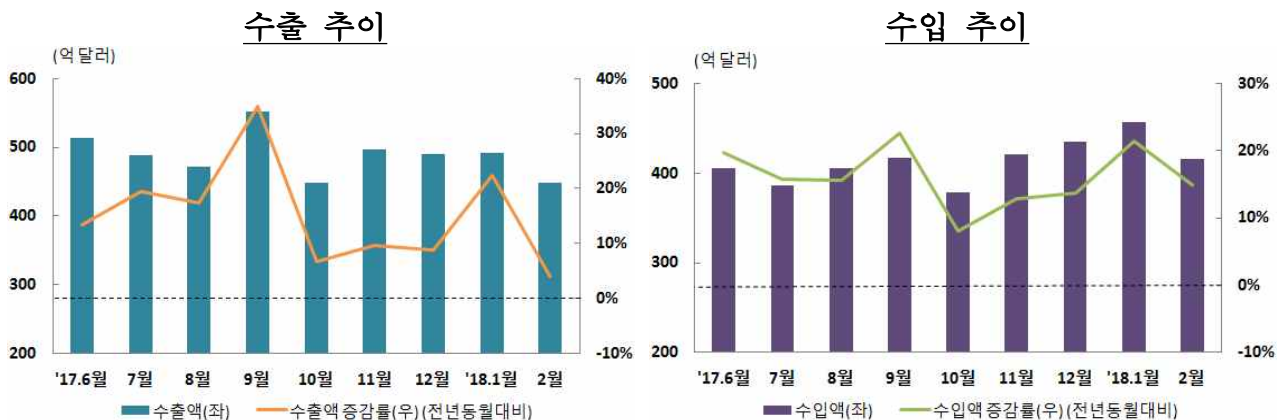
2. 수출입 현황

□ (수출)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한 449억 달러로,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2.5일)에도 불구하고 IT·반도체 경기 호조 및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 반도체(40.1%)·석유제품(15.2%)·선박(43.7%) 등에서 증가, 철강제품(△6.8%)·승용차(△14.2%)·자동차부품(△18.5%)·무선통신기기(△25.1%) 등에서 감소

□ (수입) 2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한 416억 달러로, 생산설비 투자 확대 및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6년 만에 16개월 연속 증가

○ 승용차·가전제품·소고기·담배 등 소비재(18.0%), 원유·가스·석유제품·의약품 등 원자재(16.3%), 반도체·기계류·제조용장비 등 자본재(11.5%) 모두 증가



3. 고용 및 물가

□ (고용)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 1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한파 지속

○ 2월 취업자는 2,608만 3천명, 고용률(OECD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65.8%

- 제조업,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세가 둔화하고,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10만 4천명)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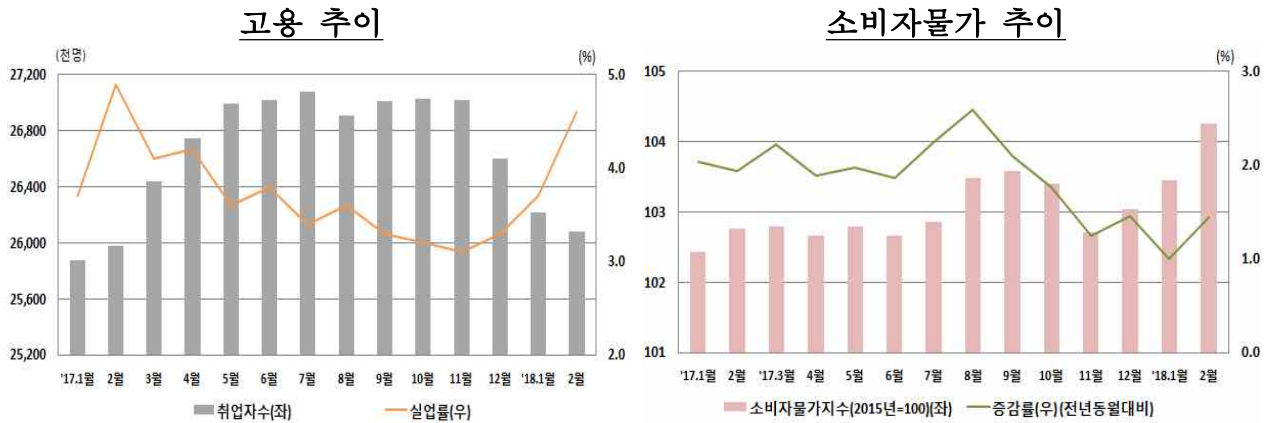
○ 2월 실업자 126만 5천명,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3% 하락

-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하락은 공무원시험 접수기간이 올해 월초에서 월말로 변경되어 공무원 응시 인원 20만명 정도가 실업자 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기인

○ 2월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2.5%p 감소한 9.8%,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한 22.8% 기록

□ (물가)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전월대비 0.8% 상승>

- 통신(△0.2%)을 제외한 가정용품·가사서비스(2.9%), 음식·숙박(2.8%), 식료품·비주류 음료(2.2%) 등 11개 부문 모두 상승



국내 경제 주요 지표

구 분	2015	2016			2017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GDP성장률(전비%)	2.8	2.8	0.5	0.5	3.1	1.1	0.6	1.5	△0.2	-	-
전산업생산지수 ¹⁾	-	-	103.6	104.1	-	105.5	105.3	106.2	106.0	107.1	-
증감률(전기비,%)	-	-	0.8	0.5	-	1.3	△0.2	0.9	△0.2	1.2	-
소매판매액지수 ¹⁾	-	-	103.0	104.4	-	104.8	105.8	106.0	107.0	108.5	-
증감률(전기비,%)	-	-	△1.6	1.4	-	0.4	1.0	0.2	0.9	1.7	-
설비투자지수 ¹⁾	-	-	108.9	117.5	-	124.5	128.3	128.6	126.4	140.6	-
증감률(전기비,%)	-	-	△0.3	7.9	-	6.0	3.1	0.2	△1.7	6.2	-
수출액(억불) ²⁾	5,268	4,954	1,219	1,324	5,737	1,321	1,470	1,511	1,435	492	449
증감률(전년동기비,%)	△8.0	△5.9	△5.0	1.8	15.8	14.6	16.7	24.0	8.4	22.3	3.9
수입액(억불) ²⁾	4,365	4,062	1,025	1,106	4,785	1,164	1,178	1,209	1,234	457	416
증감률(전년동기비,%)	△16.9	△6.9	△5.1	4.1	17.8	24.1	18.6	17.9	11.6	21.3	14.9
실업률 ³⁾ (%)	3.6	3.7	3.5	3.2	3.7	4.3	3.8	3.4	3.2	3.7	4.6
소비자물가지수 ⁴⁾	100.0	101.0	101.0	101.5	102.9	102.7	102.7	103.3	103.1	103.5	104.3
증감률(전년동기비,%)	0.7	1.0	0.7	1.5	1.9	2.1	1.9	2.3	1.5	1.0	1.4

주 : 1) 계절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2010년=100) 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리일 기준

3) 원계열(original series)

4) 2015년=100

5)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동향

- 미국 단기금리는 금리인상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 지속, 장기금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인사 교체 및 무역전쟁 이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되어 숨고르기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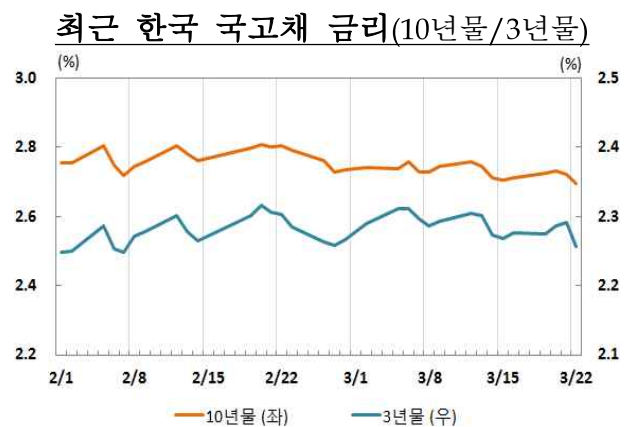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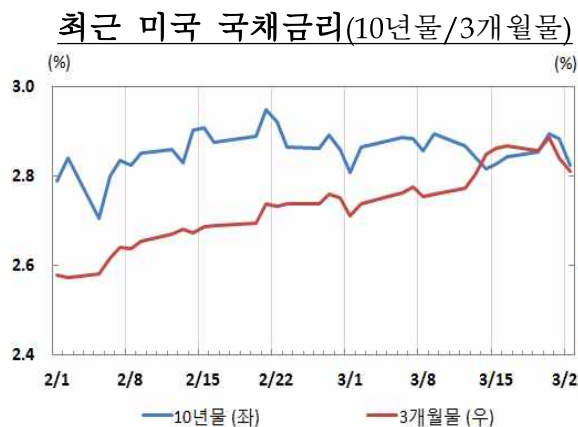
* 3월 FOMC(3.20-21)에서는 금리 인상[1.25%~1.5%→1.5%~1.75%] 발표와 함께 연 3회의 점진적 인상 기조를 재확인

- 미국 국채(3M,%): 1.478(2.1.) → 1.639(3.2.) → 1.674(3.12.) → 1.711(3.22.)
- 미국 국채(10Y,%): 2.790(2.1.) → 2.864(3.2.) → 2.868(3.12.) → 2.824(3.22.)

- 한국 국고채금리는 미국의 3월 금리인상을 선반영한 수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완화*, 추경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 해소, 보호무역주의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박스권 내 약보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3.15)에서 “(본인의) 연임으로 기준 금리가 조기에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힘

- 국고채(10년물,%): 2.756(2.1.) → 2.741(3.2.) → 2.759(3.12.) → 2.694(3.22.)



2. 환율 동향

- 미국 달러화는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및 틸러슨 미 국무장관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주요 통화대비 약세 지속

- 달러인덱스: 88.7(2.1.) → 89.9(3.2.) → 89.9(3.12.) → 89.9(3.22.)

- 유로화는 드라기 총재의 통화가치 강세 우려 발언, 물가지표 부진 등으로 소폭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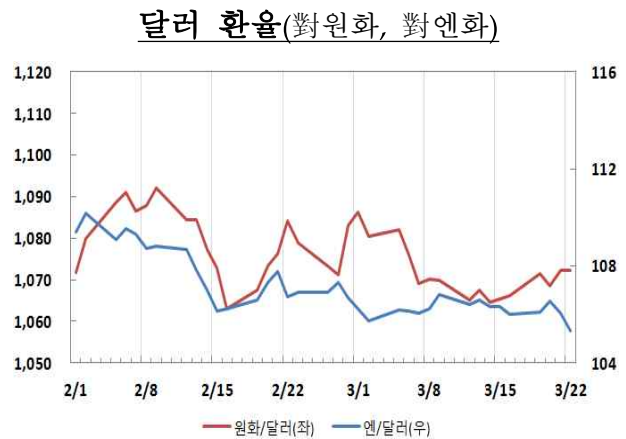
- 달러/유로: 1.251(2.1.) → 1.232(3.2.) → 1.233(3.12.) → 1.230(3.22.)

- **엔화**는 일본 경기 개선세 지속, 미중 무역전쟁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강세

- 엔/달러: 109.4(2.1.) → 105.8(3.2.) → 106.4(3.12.) → 105.3(3.22.)

- **원달러환율**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미국 보호무역정책 관련 우려감 등으로 하락(원화강세)

- 원화/달러: 1,072(2.1.) → 1,080(3.2.) → 1,065(3.12.) → 1,072(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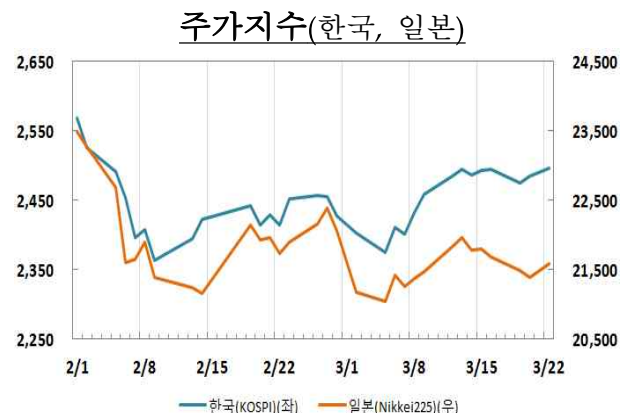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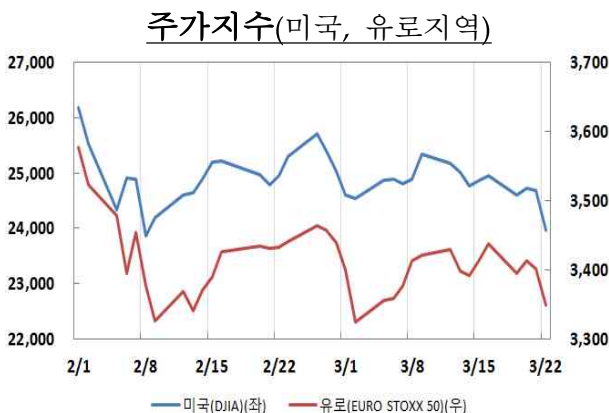


3. 주가 동향

- **다우존스 지수**는 2월 고용지표 호조에 월초 상승하였으나 미중 무역전쟁 관련 우려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여파 등으로 하락

- **코스피 지수**는 월초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상승하였으나, 이후 미국 증시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며 소폭 약세 전환

구 분		'18.2.1.	'18.3.2.	'18.3.22.
미국	Dow Jones	26,187	24,538	23,958
유로	Euro Stoxx	3,577	3,325	3,348
한국	KOSPI	2,569	2,402	2,496
일본	Nikkei225	23,486	21,182	21,592



국제 금융시장 주요지표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4	2/4	3/4	4/4	1월	2월	3.22.
금 리 (%)	정책	미국 FF금리 ¹⁾	0.25-0.5	0.5-0.75	0.75-1.0	1.0-1.25		1.25-1.5			1.5-1.75
		일본 IOER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 존 금리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국 국채(3M) ²⁾	0.163	0.497	0.752	1.011	1.041	1.376	1.455	1.652	1.711
		미국 국채(10Y) ²⁾	2.269	2.444	2.387	2.304	2.334	2.405	2.705	2.861	2.824
		일본 국채(10Y) ³⁾	0.267	0.043	0.067	0.086	0.062	0.047	0.085	0.053	0.031
	국내 ⁴⁾	국 고 채 (3 Y)	1.662	1.638	1.662	1.698	1.888	2.135	2.274	2.266	2.256
		국고채(10Y)	2.076	2.074	2.177	2.214	2.379	2.469	2.769	2.736	2.694
	국제 환율 ⁵⁾	¥ / U S \$	120.2	117.0	111.4	112.4	112.5	112.7	109.2	106.7	105.3
U S \$ / €		1.086	1.052	1.065	1.143	1.181	1.201	1.241	1.219	1.230	
원화 환율 ⁵⁾	₩ / U S \$	1,175	1,206	1,118	1,144	1,145	1,067	1,068	1,083	1,072	
	₩ / 1 0 0 ¥	977	1,031	1,004	1,019	1,018	947	979	1,016	1,023	
주 가 ⁶⁾	미국 Dow Jones		17,425	19,763	20,663	21,350	22,405	24,719	26,149	25,029	23,958
	일본 Nikkei225		19,034	19,114	18,909	20,033	20,356	22,765	23,098	22,068	21,592
	유로 Euro Stoxx		3,268	3,291	3,501	3,442	3,595	3,504	3,609	3,439	3,348
	코 스 피		1,961	2,026	2,160	2,392	2,394	2,467	2,566	2,427	2,496
	코 스 닉		682	631	619	669	653	798	914	857	872

주 : 1) '16.12.14, '17.03.15, '17.06.14, '17.12.13, '18.03.21 각각 0.25bp 인상

2) 블룸버그 집계 (BGN,Bloomberg Generic Price) 미국 일반국채 수익률(3개월, 10년)

3) 일본 재무성, Japanese Government Bonds

4)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블룸버그

자료 : 블룸버그, 일본 재무성, 금융투자협회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유가) 공급증가 우려로 2월 중순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하락한 이후 3월 들어 반등
 - 유가는 1월 말 이후 미국 원유시추 리그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미국 원유재고 증가와 생산량 증가 우려감 등으로 하락하여 2월 중순 배럴당 60달러선 붕괴(\$59.4/bbl, 두바이유, 2.14.)
 - 미국 원유시추 리그 수는 1월 중순 747개에서 3월 중순 800개로 증가
 - EIA(미국 에너지정보청)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7개의 주요 셰일지역 4월 생산량이 전월대비 13.1만 b/d 증가한 695.4만 b/d가 될 것으로 예상
 - 이후 한 달 남짓 배럴당 60달러선(두바이유)에서 보합세를 지속하다 3월 중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베네수엘라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반등(\$65.44/bbl, 두바이유, 3.22.)
 - 사우디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방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원자로 개발 계획 및 이란 핵협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중동지역내 긴장감 조성
- (천연가스 가격) 1월 말 급락한 이후 mmBtu당 2달러 중반대에서 보합
 -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온화한 날씨 예보에 따른 동절기 난방용 발전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우려 등으로 1월 말 mmBtu당 3달러 중반대에서 2월 초 2달러 중반대로 급락하여 3월 중순까지 보합세
- (연료탄 가격) 중국 동절기 수요 감소로 2월 말 이후 급락
 - 온난한 날씨에 따른 중국의 동절기 발전수요 감소, 석탄 재고 증가 등으로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2월 말 이후 가격이 하락하여 3월 중순 톤당 100달러선 하회(\$92.64/ton, 호주뉴캐슬 FOB, 3.23.)
- (주요 광물자원 가격) 전기동 등 비철금속 가격 2월 중순 이후 소폭 하락, 철광석은 3월 들어 하락, 우라늄 가격 약세 지속
 - 전기동은 글로벌 공급차질 이슈(몽골 정광수출 도로차단 해제, 인도네시아 정광수출 허가기간 연장 등) 완화, 미국 금리인상과 유가 하락세 영향 등으로 2월 중순 대비 가격 하락
 - 니켈가격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 등으로 2월 중순까지 상승했으나 중국 철강시장 약세 기조에 따라 동반 하락

- 아연 가격은 수요증가 및 신규 프로젝트 부족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로 가격이 상승하며 10년래 최고치를 경신(\$3,586/ton, LME, 2.16.)했으나 2월말 이후 단기간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 등으로 하락
- 철광석 가격은 중국 춘절연휴 이전 제강사들의 원재료 재고비축 수요 증가로 2월말까지 톤당 70달러 후반대로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의 철광석 재고, 중국 철강시장 약세 영향으로 3월 중순 60달러 후반대로 하락
- 우라늄은 2017년 11월 메이저기업의 대규모 감산으로 20달러 중반대로 상승했으나 연말 이후 20달러 초반대로 하락, 일본 원전재가동이 안전검사 강화 및 지방정부 반발 등으로 차질을 보이는 등 수요위축으로 보합세 지속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4	2/4	3/4	4/4	1월	2월	3.22.
유가 (\$/배럴)	Brent	37.28	56.82	52.83	48.77	56.79	66.87	68.89	64.73	68.91
	WTI	37.04	53.72	50.6	46.04	51.67	60.42	64.73	61.64	64.3
	Dubai	32.19	53.83	50.78	46.47	55.19	64.33	65.77	63.22	65.44
천연가스 (\$/백만BTU*)		2.337	3.724	3.190	3.035	3.007	2.953	2.995	2.667	2.617
연료탄(전력용) (\$/ton)		51.58	92.00	82.6	80.25	93.18	104.88	108.35	107.97	94.80
우라늄 (\$/lb)		34.4	20.4	23.25	20.5	20.25	23.9	22.25	22.0	21.75
철광석 (\$/ton)		43.57	78.87	80.39	64.95	62.05	72.61	72.92	78.61	67.18
전기동 (\$/ton)		4,701	5,501	5,849	5,908	6,485	7,157	7,101	6,953	6,747
니켈 (\$/ton)		8,700	10,035	9,875	9,280	10,585	12,260	13,555	13,800	13,405
아연 (\$/ton)		1,616	2,563	2,783	2,754	3,217	3,309	3,590	3,499	3,226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bl)

기준 유종	2017	2018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50.79	62.46	58.33	56.00	56.66	58.17
Brent	54.15	66.30	62.33	60.00	60.00	62.13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8년 3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조선) 2월 수주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 기록

- 2월 기준 누적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117.7% 증가한 91만CGT
 - 2월에는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탱커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주량을 나타나며 전년동월대비 133.6% 증가한 91만CGT를 기록
 - 신조선가의 하락이 멎은 상황에서 저가투자에 대한 유인이 작용하였고, LNG 운송시황이 호전되며 선박 발주 증가
- 2월 기준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63.9% 증가한 28.3억 달러
 - 2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73.7% 증가한 15.5억 달러
- Clarkson의 2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58 point 상승한 126.58로, 소폭 상승하며 수주량 증가와 더불어 경기전망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음
- 2월 누적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5.1% 증가한 51.1억 달러
 - 2월 수출은 건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해양플랜트와 LNG선 등의 인도로 전년동월대비 40.3% 증가한 26.6억 달러 기록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월	1월
수주실적	332.5 (△27.3)	241.2 (△27.5)	44.0 (△81.8)	156.5 (255.8)	28.3 (63.9)	12.7 (53.3)	15.5 (73.7)
수출실적	398.9 (7.3)	401.7 (0.7)	342.7 (△14.6)	421.8 (23.1)	51.1 (25.1)	24.5 (11.9)	26.6 (40.3)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 영국 해상 자원개발이 경제성 회복으로 활발해질 전망

- 2018년 영국 해상 자원개발 관련 최종투자결정(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이 총 13건(약 5.5억 boe 규모)으로 지난 2년간 4건(1.23억 boe)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FID 13건 중 Shell의 Penguins 프로젝트(Shetland 섬 북동부)는 2014년 유가 급락 이후 북해 유전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투자결정 중 하나로 꼽힘

- Shell 프로젝트 외에 Decipher Energy의 Orlando 프로젝트, Alpha Petroleum의 Cheviot 프로젝트, 지연 중이던 Buzzard Phase 2 프로젝트 등도 포함됨
- 또한 2019년 예정되어 있는 FID 중 일부가 2018년에 승인될 가능성도 있어 금년 영국 해상개발이 활발해질 전망
- Siccar Point Energy가 2019년으로 계획 중이던 FPSO 프로젝트가 올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 올해 영국 해상 자원개발이 활발해진 것은 저유가 시기의 비용절감 노력과 유가상승 등 경제성 회복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해외건설) 2월 수주액은 29.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

- 주력 수주시장인 중동 및 아시아 시장 수주가 전년대비 144%, 140% 증가
- 유가 상승 및 아시아 경제성장 등 수주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올해 해외건설 수주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월	2월
수주실적	660 (1.2)	461 (△30.1)	282 (△38.8)	290 (2.8)	69.8 (143)	40.3 (143)	29.5 (144)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 (ICT) 2월 ICT 수출은 157.3억 달러로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달성

- 2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0% 증가한 157.3억 달러, 수입은 6.9% 증가한 78.1억 달러, 수지는 79.2억 달러 흑자 달성
- 반도체는 서버용 수요 강세(D램), 스마트폰용 고용량 탑재 증가(낸드플래시) 등 영향으로 메모리반도체(56.1%) 및 시스템반도체(11.2%)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40.8% 증가한 91.5억 달러 수출 달성
-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27.8%)와 OLED(△8.4%) 수출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0% 감소한 18.7억 달러 기록
- 휴대폰은 신규 스마트폰 대기 수요와 해외생산 확대로 완제품(△28.2%)과 부분품(△35.2%) 수출이 동반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2.9% 감소한 10.0억 달러 기록

-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데이터센터 및 서버용 고용량·고성능 SSD 수요 확대 및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수출 호조세 지속,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29.2% 증가한 9.0억 달러 달성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적	1월	2월
수출실적	1,762.3 (2.1)	1,728.8 (△1.9)	1,625.0 (△6.0)	1,976.1 (21.6)	334.3 (20.0)	177.0 (28.1)	157.3 (12.0)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2월 모듈 수출액 1.54억 달러, 폴리실리콘 수출액 0.64억 달러 기록

- 2월 모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3.9% 증가했으나, 폴리실리콘 수출은 38.5% 감소
 - 세계 태양광시장 호황으로 모듈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폴리실리콘 수출은 중국 수입 감소 및 가격 약세 영향으로 주춤한 상황
- 대미 모듈수출액은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영향으로 감소(△28.4%)하였으나, 세계 태양광시장 호황으로 미국을 대체할 시장이 늘어나 현재까지 모듈 수출은 양호한 상황
 - 네덜란드(59.8%), 독일(23.1%), 일본(23.4%) 등에서 모듈 수출 대폭 증가하며 수출지역 다변화 진전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월	2월
태양전지 모듈	9.7 (7.4)	13.2 (△36.1)	18.9 (43.2)	19.1 (1.6)	3.44 (54.3)	1.90 (75.9)	1.54 (33.9)
폴리실리콘/ 잉곳	13.1 (67.5)	12.7 (△3.6)	12.6 (△0.4)	12.5 (△0.8)	1.76 (△8.3)	1.12 (28)	0.64 (△38.5)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생산지수·가동률 하락, 2월 한파 영향 업황 부진 지속

- 1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6.6%, 평균가동률은 1.0%p 하락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96.3) 대비로는 2.4% 상승했으나, 전월(107.6) 보다는 6.6% 하락한 100.5 기록
 - 가동률은 음료,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7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목재 및 나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15개 업종에서 하락해 전월(73.4%) 대비 1.0%p 하락, 전년동월(72.2%) 대비로는 0.2%p 상승한 72.4%
- 2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월보다 3.0p 하락한 75.1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 (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2월 한파 등의 영향으로 내수판매(77.7→74.5)가 하락한 가운데, 수출판매(86.4→80.9), 자금사정(75.7→72.9) 등 전 부문에서 하락세 지속
- 중소기업대출(3.6조원 → 4.8조원)은 일부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폭 확대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산지수	(2015년 =100)	96.2 (0.8)	102.6 (1.2)	99.5 (1.3)	110.7 (5.3)	102.2 (6.2)	107.7 (4.9)	106.0 (6.5)	104.0 (-6.1)	109.1 (-5.2)	107.6 (-9.7)	100.5 (2.4)	-
평균가동률	(%)	72.0	74.0	73.3	73.6	72.7	73.2	73.2	73.1	73.5	73.4	72.4	-
자금대출	(조원)	9.5	10.1	9.5	1.5	10.3	10.6	14.4	6.2	4.9	-2.4	3.6	4.8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SBHI)	경기전반	78.1	86.6	83.7	81.1	77.9	84.2	84.5	84.0	86.6	85.2	78.1	75.1
	내수판매	78.1	85.9	83.1	81.9	77.2	83.7	83.6	82.9	84.9	85.0	77.7	74.5
	수출판매	77.6	86.7	86.0	84.9	86.8	87.9	88.8	88.4	89.0	87.3	86.4	80.9
	자금사정	77.0	82.8	81.5	79.0	75.5	79.2	80.1	79.4	81.0	79.4	75.7	72.9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